

# 일본 자민당 참패 기시다 정권 위기

### 중의원 보궐선거서 '보수 왕국' 시마네 1구 등 19곳 전패 '퇴진 위기' 수준 지지율...입헌민주당, 중의원 해산 압박

2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전패하며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위기에 몰렸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도쿄 15구, 혼슈 서부 시마네 1구, 규슈 나가사키 3구 중 의원의원을 뽑는 이날 보선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른 자민당은 선거구 3곳 중 2곳에는 아예 후보를 내지 못했고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자민당이 무패를 자랑해 '보수 왕국'으로 불린 시마네 1구에만 유일하게 후보를 냈으나 패배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 일대일 구도도 치러진 시마네 1구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자민당은 시마네 1구에 재무관 출신인 니시코리 노리마사를 공천했고 입헌민주당은 가메이 아키코 전 의원을 내세웠다.

양당은 이곳에서 치열한 유세전을 벌였고 특히 다른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은 자민당은 시마네 1구에 사활을 걸었다. 기시다 총리도 선거 고시 이후 두 차례 시마네현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가메이 후보는 58.8%의 득표율을 기록, 니시코리 후보에 17.6%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다.

입헌민주당 후보는 불문 파문을 겪은 베스트셀러 '오체불만족' 저자 오토타케 히로타다를 비롯해 후보 9명이 경쟁한 도쿄 15구, 야당 후보끼리 양자 대결을 펼친 나가사키 3구에서도 각각 승리했다.

자민당이 '보궐선거 전패'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들면서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 지지율을 기록 중인 기시다 내각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비자금 사건에 대한 자세를 추궁당한 기시다 총리에게는 냉엄한 결과가 됐다"며 "향후 정권 운영에 미칠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교도통신도 "보선 전패는 자민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뒷받침하는 형국"이라며 "세 의석은 모두 자민당 의석이었던 만큼 기시다 정권에 타격이 됐다"고 해설했다.

기시다 총리는 시마네 1구에서 패배를 면하고 6월 소득세·주민세 감세 시행 등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뒤 9월 자민당 총재 재선 혹은 중의원 조기 해산에 이은 총선거 승리를 장기 집권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선 참패로 구심력을 크게 잃게 됐다.

전승을 거둔 입헌민주당 측은 이날 중의원 해산을 요구하며 기시다 총리를 압박했지만 자민당은 해산 직후 총선이 치러질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해산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 총리를 상대로 9월 총재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현재 일본 제1당은 자민당이다. /연합뉴스

# 이스라엘-하마스 휴전할까...국제사회 분주

### '라파 재앙' 막기 총력전...하마스, 이스라엘 협상안 검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협상 중재국 이집트를 통해 지난 26일(현지시간) 새 제안은 전달받은 하마스는 29일 협상대표단을 이집트 카이로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카타르 매체 알아라비 알자지드 보도를 인용, 이집트 정부가 이스라엘에도 이날 대표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대표단을 파견할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런 움직임은 5개월간 공전해 온 휴전 협상을 이번에는 반드시 되살려내겠다는 중재국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 현재 제안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도 되기로는 여성과 어린이, 50세 이상 남성과 병자 등 생존 인질 33명을 석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집트 당국자를 인용, "하마스가 인질 20명으로 구성된 첫 번째 그룹을 석방하면 이스라엘은 휴전 기간과 관련한 장기적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석방될 인질은 여군을 포함한 여성과 미성년자,

급히 치료가 필요한 노인 등이며,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의 대가로 약 500명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풀어주게 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이러한 내용의 인질-수감자 교환이 성사되면 양측은 10주간의 휴전에 돌입한 채 이른바 '지속 가능한 평온의 회복'을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협상안에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와 북부를 분리하는 '넷자림 회랑'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있는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피란 생활을 끝내고 귀가할 길을 열어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카타르의 하마스 정치국은 군사조직 및 가자지구의 여러 다른 정파와 협의해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정치국이 아니라 하마스의 가자지구 내 군사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가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WSJ은 전했다.

그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휴전 협상 성사를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마스를 궤멸시키겠다고 항구적 휴전을 거부하던 이스라엘이 한발짝 물러서면서 타협점을 모색할 길이 열렸다는 판단에서다.

협상 타결이 불발돼 140만명의 팔레스타인 피란민과 주민이 하마스 잔존세력과 뒤섞여 있는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세가 본격화하면 막대한

수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 우려도 배경이 됐다.

라파를 공격하겠다는 이스라엘을 말려온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휴전 협상과 라파 지상전 등에 대한 논의를 교환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라파 공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며 밝혀 지상전 자체 권고와 민간인 참사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음을 시사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WEF) 회의를 계기로 모인 아랍 각국 당국자들과 휴전 협상 성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랍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외교장관은 전날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당국자들과 진행된 회의에서 가자지구 휴전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논의하기도 했다.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은 WEF 특별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격은 "팔레스타인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지난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인질 협상이 성사되면 이스라엘군은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을 연기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이스라엘과 거리 뒤편" 미국 대학가 이-팔 충돌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28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캠퍼스에서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현장에서 맞불 집회를 벌이다가 양측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 CNN 방송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UCLA 캠퍼스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몸에 두르거나 손에 든 친(親)이스라엘 시위대 수백 명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모여 있는 잔디밭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반대편 시위대와 대치 상황을 지속했다.

팔레스타인 전통 복식인 체크무늬 두건(카피예)을 두른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스크림을 찬 상태로 친이스라엘 시위대의 진입을 막았다.

다행히 이날 대치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미 대학가 시위에서 이스라엘 정부 지지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현장에서 맞불 집회를 벌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이 직접 물리적으로 접촉하며 긴장이 고조된 것은 드문 일이었다.

대학 측도 이날 양측 시위대 간 설치돼 있던 분리시설이 뚫리고 양측 시위대 간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날 성명에서 "UCLA는 평화적 집회의 장소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오



각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캠퍼스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아이비리그에서 시작된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늘 같은 폭력이 발생해 가슴 아프다"라며 사태가 격화하는 것을 우려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지난 24일 인근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캠퍼스에서 가자 전쟁 반대 등을 외치며 텐트 농성을 벌이던 학생 등 93명이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미국 대학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 등을 촉구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확산하면서 졸업 시즌 및 학기 말을 앞두고 캠퍼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이날 18일 뉴욕의 컬럼비아대에서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며 텐트 농성을 벌이던 학생 108명이 연행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시위로 지금까지 미 전역의 대학에서 700명 이상이 체포됐다.

학생들의 요구 사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학교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지원 하는 기업,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자체와도 거리를 뒤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일랜드 난민 급증...비상 대책 추진

### 영국 '르완다 정책' 여파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아일랜드가 영국의 '르완다 정책' 여파로 자국으로 건너오는 난민이 급증했다며 비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헬렌 매켄티 아일랜드 법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에 "명명 신청자를 영국으로 효과적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유로뉴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또 오는 29일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내무장관과 회동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주 의회에서 최근 아일랜드에 유입된 명명 신청자 80% 이상이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에서 국경을 넘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25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보도된 인터뷰에서는 "이들이 (르완다로 이송될까 봐) 영국에 남아 있기를 두려워한다"며 "아일랜드와 EU에서 피난처를 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섬 안에 있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EU와 결별한 영국과 EU 사이의 유일한 육상 국경으로, 출입국 심사가 없어 사실상 개방돼 있다.

영국은 영국해협을 통해 유입되는 이주민을 막기 위해 이들을 비행기에 태워 르완다로 보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의회는 최근 인권 침해, 국제법 위반 논란 속에서도 르완다 난민 이송 법안을 가결했고 리시 수낙 총리는 7월께 르완다행 첫 항공기를 띄우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0-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